



## 임효명 | 만나교회

### 1. 들어가는 말

사울은 왜 몰락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라는 것이다(삼상 15장). 근래의 신문학비평(New literary criticism)은 이제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던 이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울에게서 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문제점을 찾는다.<sup>2)</sup> 신문학비평

- 
- 1) 이 논문은 저자의 2010년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 논문(*Portrait of God in Saul's Rise and Rejection*)의 일부를 재구성 및 심화한 것이다.
  - 2) David M. Gunn, *The Fate of King Saul* (JSOTSup 14; Sheffield: JSOT Press, 1980); J. Cheryl Exum, *Tragedy and Biblical Narrative: Arrows of the Almigh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Lyle M.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1 Sam 1 - 12* (Bible and Literature Series, 10; Sheffield: Almond Press, 1985); Barbara Green, *How Are the Mighty Fallen? A Dialogical Study of King Saul in 1 Samuel* (JSOTSup 365; London/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Ltd., 2003); Serge Frolov, *The Turn of the Cycl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www.kci.go.kr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여왔던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대치하려는 시도였으며, 따라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왕정은 요구대로 주어졌으나 초대 왕 사울은 그 반감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본문읽기를 시도한 학자들은 인간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내며, 하나님의 악의와 적대감 등을 본문에서 발견한다.

이 논문은 이스라엘의 왕정수립과정에서 사울의 등장과 몰락을 둘러싼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의 관계를 기록한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를 읽으면서 사울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상을 재구성하되 사무엘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무엘상 8장은 사울의 등장의 발단이 된 이스라엘의 왕정요구를 다룸으로 연구에 포함되었고 사무엘상 14장은 사울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룬 것으로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등장이 없으므로 연구에서 제외될 것이다.<sup>3)</sup>

본문분석은 신문학비평의 도구들을 사용하되 성격묘사(characterization)를 분석하며, 본문의 공백과 모호성, 명령된 것과 행하여진 것/행하여지지 않은 것, 반복진술 또는 전달시의 변화 등에 집중하여 본문을 읽어 나갈 것이다. 성격묘사 분석시 알터(Robert Alter)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를 참조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라는 캐릭터의 특성상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하면<sup>4)</sup>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3) 사무엘상 14장에서는 그 날의 승리를 언급할 때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23절)라는 표현과 백성들의 입을 통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45절)라는 선언이 나오는데 이는 사울이 아닌 그의 아들 요나단과 관계된 것이다.

4) 캐릭터구성에 있어 참고되는 것 중 외모, 사회적 지위, 개인적인 배경, 고향 등은 하나님께 적용될 수 없다.

- 1) 화자(narrator)가 말하는 하나님의 내면 세계와 행동, 말들
- 2)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
- 3) 다른 인물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 또는 다른 인물이 전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sup>5)</sup>

위의 범주는 신뢰도에 따른 배열로서 본 논문은 이스라엘의 왕정수립 과정에서 화자의 묘사와 하나님의 일인칭 묘사가 그려내는 하나님의 상과 다른 캐릭터 특히 하나님의 대변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상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이 연구는 화자(narrator)가 독자에게 신빙성있는 진술을 하며, 각 등장인물들은 개개인의 상황과 이권의 개입으로 인해 그들의 의견이나 진술이 왜곡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2. 장로들의 왕정 요구와 아웨의 승인 (삼상 8장)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왕정을 요구한다: 사무엘이 연로하였고 그가 사사로 세운 그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삼상 8:5). 이들의 주장은 3절의 화자의 말과 단어사용까지 일치한다.

사무엘이 늙으매(שָׂמַךְ אֶת־זָקֵן) 자켄 쉘무엘)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וְלֹא־יָשִׁיבוּ אַחֲרַי), 벨로 할쿠 비나브 비드라카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삼상 8:1-3).<sup>6)</sup>

5)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116-117.

6) 개역개정판 성경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삼상 8:4-5)  
 (אִתָּא זַכָּנְתָא וּבָבִיעָא לֹא הִלְכוּ בְּדַרְכֵיךָ) 아타 자칸타 우바네카 로 할쿠 비드라케카)

화자의 말과 장로들의 말의 일치는 장로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준다.<sup>7)</sup>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패는 엘리의 두 아들의 부패와 더불어 두 지도자 가문의 연이은 실패를 보여주며 이스라엘 내에 지도력의 위기를 가져온다.<sup>8)</sup>

장로들은 왕의 직능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라고 요구한다. 그들이 사용한 “다스리다(מָנַחַשׁ 사파트)”는 단어는(삼상 8:5)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직능을 표현할 때 사용된 것으로서(삼상 7:15, 8:1) 왕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자리를 대신할 것을 드러낸다. 다스리는 일 이외에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직무가 추가로 언급되는데(삼상 8:20), 다스리고 대적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두 가지 직무는 사사들에 의해 행해졌다.<sup>9)</sup> 따라서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구를 자신의 사사직 거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삼상 8:6).<sup>10)</sup>

장로들의 요구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사무엘과 동일하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7) 화자는 신뢰도에 있어서 최우위를 차지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주장이나 말들은 화자의 진술 또는 다른 인물의 말과 비교하여 진위를 결정한다. Yaira Amit,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93–102 참조.

8) 김재구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고통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손쉽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인간의 간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데 실패한 지도자들의 무능함에서 기인한 것”이라 본다. 김재구,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구약논단』35집 (2010년 3월), 93.

9) 사 2:16; 12:11 참조.

10)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 그린(Barbara Green)은 사무엘을 “해고(fire)”한 것으로 표현한다. *How Are the Mighty Fallen?* 182–83, 255 참조.

것임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삼상 8:7-8).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מֶלֶךְ וְכֹהֵן מִשְׁפָּחַת חַמְפֵּלֶק)를 가르치기를 사무엘에게 명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아가 왕의 제도를 알리되 왕이 백성들의 것을 탈취할 것에 강조점을 두어 전하며 왕의 압제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말로 끝맺는다(삼상 8:11-18).<sup>11)</sup> 그의 부정적인 왕정모사는 뒤이어 화자가 보고하는 백성의 반응과 더불어 사무엘의 연설의 목적이 왕정포기임을 쉽게 짐작케 한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삼상 8:19)

왕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왕정수립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는 사무엘의 왕정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백성들의 반발에 직면한 사무엘은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그들의 요구를 알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기를 재차 명한다. 사무엘의 다음 행동은 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설명없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삼상 8:22):

22a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22b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11)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총 7절에서 “취하다”는 의미의 동사 מָצָא(라카흐)가 4회 “심분의 일을 취하다”는 의미의 동사 מָצָא(아사르)가 2회 사용되었다; 클레멘츠(R. E. Clements, “The Deuteronomistic Interpretation of the Founding of the Monarchy in I Sam. VIII”, *Vetus Testamentum* 24 [1974], 398-410)는 사무엘의 묘사에 등장한 “왕의 제도”는 솔로몬의 통치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셀라스는 사울의 왕권이 사무엘이 제시한 왕의 모습과 달리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Dawn Maria Sellars, “An Obedient Servant? The Reign of King Saul(1 Samuel 13-15) Reassesse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Vol. 35,3(2011), 317-338 참조.

8장 22절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그 확연한 대조로 인해 한 편의 희극과도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왕을 주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의 돌연한 백성해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 화자는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도 없고, 사무엘이 왜 백성을 해산하였는지에 대해 단서를 제공할만한 그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도 없다. 다만 장로들의 왕정요구가 그를 불쾌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삼상 8:6). 사무엘의 행동은 세 가지의 해석 가능성이 있다. 그의 행동은 “적당한 후보를 물색하기위해 시간을 벌기위한 행동”이거나,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대하면서 보여준 순종의 행위,”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동일 수 있다.<sup>12)</sup> 본 연구는 왕정수립과정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이 세 가지 가능성중 왕정수립과정의 다른 이야기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한편, 사무엘의 왕정에 대한 태도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향을 프레타임(T. E. Fretheim)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움직인다; 하나님은 기꺼이 새로운 방향을 시도할 의사가 있다;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 갈 때 백성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구약의 현저히 다양한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의 방향 설정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고려한다(출 32:11-14; 민 14:11-20 참조). 전체 사울이야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다; 그것 없이는, 최소한 나레이터

12)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45; H. W. Hertzberg, *I and II Samuel: A Commentary*, translated by J. S. Bowden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80 참조.

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의 왕권은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sup>13)</sup>

### 3.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다 (삼상 9:1-10:16)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나서는 일화는 백성들에게 왕을 주라는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아무 설명없이 갑작스럽게 백성들을 해산시켜 집으로 돌려보낸 직후 전개된다. 이 일화의 현 위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사무엘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왕정수립 여부가 불확실한가운데 나옴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로 왕정수립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는 이유는 이러한 해석을 강화시킨다: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삼상 9:16)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보낸다는 것은 왕정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요구로 세워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세워진 제도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써 사무엘상 8장에서 거론된 왕정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왕을 구하였고(삼상 8:5), 사무엘은 왕정을 자신의 사사직의 대체로 받아들였고(삼상 8:6-7), 하나님은 사무엘과 하나님 모두를 거부하는 것으로 선언하였다(삼상 8:7-8). 이러한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사무엘상 9장에 이르

---

13) Terence C. Fretheim, "Divine Foreknowledge, Divine Constancy, and the Rejection of Saul's Kingship",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7 (1985), 600-601.

러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뀐다.<sup>14)</sup>

시각의 변화는 사울에 대한 우호적인 소개에서부터 나타난다. 화자는 사울의 짧은 족보와 그의 신체적인 우월함을 언급하며 그를 소개한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삼상 9:2)

그의 묘사는 후에 백성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는 사무엘의 말과 짝을 이룬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삼상 10:23-24)

과묵한 것으로 알려진 화자가 사울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많은 단어를 쓴 것은 주목할 만하다. 외모에 대한 모티프는 사울이야기에서만 아니라 다윗이야기(삼상 16:6-13)에서도 등장한다.<sup>15)</sup>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

14) 역사비평학적으로 삼상 8장과 9장은 반왕정사료와 친왕정사료로 구분되어 연구되어왔으나 본 논문은 공시적(synchronic)으로 본문을 연구하며 현재의 본문의 배열과 그것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헤르쯔베르그(Hertzberg, *I & II Samuel*, 82)는 역사비평학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9장 1절 - 10장 16절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재정립할 필요에서 편집자가 현재의 위치에 넣었다고 본다. 왕은 하나님에 의해 먼저 지명되어야 하는데 장로들의 요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주도적 역할의 회복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언급된 사무엘에게 주신 계시와 사울의 기름부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5) 엘리압은 외모가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 버림을 받는다(삼상 16:7). 아이러니 칼하게도 선택을 받은 다윗의 용모 역시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삼상 16:12).



로 사무엘은 외모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사울의 출중한 외모는 선지자 사무엘을 위한 회유책이 아니었을까?<sup>16)</sup> 외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완벽한 왕 후보자로 보였을 것이다. 사무엘상 10장 23절과 24절은 사울이 사무엘과 백성을 만족시키는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 준수한 외모에 흰칠한 키의 사울의 등장과 더불어 교착상태에 빠졌던 왕세우기는 해결의 국면을 맞게 된다.

회자의 사울의 외모에 대한 경탄은 하나님의 침묵과 대조된다.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 단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라는 말로 알릴뿐이다(삼상 9:16). 사울의 외모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후에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외모에 이끌리는 사무엘에게 한 경고와 일맥상통한다:

...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사무엘에게 한 경고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기준이 “중심(מִצְּבֵי 레바브)”이라면 사울의 선택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삼상15:17) 한 말은 사울의 “중심”이 어퍼함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 추측이 빗나간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만일 하나님이 사울의 중심을 보고 그를 선택한 것이라면,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후회는(삼상 15:11) “중심”이라는 하나님의 선택기준이 완전하지 못함을 드러낸다.<sup>17)</sup> 즉, 사울이 하나님을 좇는데서 돌이켜 명령을 행하

16)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개방성과 연관이 된다. 하나님은 파트너로 선택한 사람들의 주장과 편견까지도 고려하고 그들을 회유하는 것으로 발견된다.

17) Jeffries M. Hamilton, “Caught in the Nets of Prophecy? The Death of King Ahab and the Character of God”,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6 (1994), 649-663 참조.

지 않았으므로 그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불변하는 것이 아닌 변화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였으며, 사람의 중심이 외모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 나선 사울의 여행은 평범한 여행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여행에는 계속적으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이 사무엘상 9장 중반에서 밝혀진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낼 것을 계시한 내용을 여정의 중반에 삽입함으로써 사울의 평범한 여행이 하나님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비범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는 사울을 보낸 이유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밝힌다.<sup>18)</sup> 장로들의 요구는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사울을 보낸 것으로 말씀하는데, 그 결과 왕의 직분은 압제하의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로 보내진다는 점에서 사사의 것과 연속선상에 놓여지게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대변인이긴 하지만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의 이해관계나 생각에 따라 임의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때로는 그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준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나님의 행동은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역사를 함께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대체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의 성격 자체가 사람들의 참여를 유

---

18) 화자에 따르면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아웨의 보호를 받았다(삼상 7:13).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무력압제는 없었더라도 다른 형태의 억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은 블레셋이 철기를 철저히 독점하여 이스라엘이 농기구를 버리려면 블레셋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만듦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경제를 어떻게 통제하려했는지를 보여준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칼이나 창을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뿐이었다(삼상 13:22).

도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많은 경우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으며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일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만 비밀리에 그 예식을 행한다. 사울이 나타난 때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고, 그가 삼십 명 가량의 손님이 있는 객실로 안내되어 상석에 앉혀진 것(삼상 9:22)을 고려할 때, 사무엘이 비밀리에 그를 기름부은 것과 그 사실이 사울의 가족에게까지도 비밀에 부쳐진 것은 의문을 갖게 한다.

맥카터(P. Kyle McCarter)는 소명을 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므로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sup>19)</sup> 그러나 구약의 소명기사는 크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과 선지자를 통한 간접적인 소명으로 나눌 수 있다.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소명기사인 모세(출 3장), 이사야(사 6장), 예레미야(렘 1장), 기드온(삿 6:11-24) 등의 소명은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을 받는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한 소명과 기름부음에는 대부분 제 3자가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암시되어있다. 다윗의 경우 가족들이 기름부음의 자리에 있었고(삼상 16장), 엘리사는 밭을 가는 중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후 그가 밭 갈던 소 한 겨릿소를 잡아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른 것을 볼 때, 그의 소명이 공개적인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왕하 19:19-21). 한편, 예후는 군대장관들과 있다가 따로 불림을 받아 골방에서 비밀스럽게 기름부음을 받지만, 그의 소명이 그를 포함한 군대장관들이 섬기는 주인 아합에 대한 반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밀스러움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며, 그 비밀스러움도 그가 동료 군대장관들에게 기름부음을 즉시 알림으로 해제가 된다(왕하 9:1-10). 이들 소명기사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은 개인적인 환경에서 이

---

19) P. McCarter,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187.

루어지는데 반해 선지자를 통한 것은 다소 공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울의 경우는 선지자를 통한 소명으로서 그의 기름부음이 비밀스러운 가운데 이루어지며, 전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사무엘과 사울의 비밀회합은 아웨의 계획을 실행하되 주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울의 능력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다.<sup>20)</sup>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그의 비밀스러운 행동의 결과 하나님이 그를 보내었다는 것과 사울을 기름부은 사실은 백성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부재에 따른 사무엘의 자의적인 해석이었을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왕을 세우기보다는 왕을 세우지 않도록 백성을 설득하려 하였고, 그것이 실패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들을 해산시키기도 하였다. 사무엘의 백성해산은 그의 비밀스러운 기름부음과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 같은 예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될 때에 실행자의 해석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상과 그의 대변인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상에 괴리가 생기게 된다.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의 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무엘상 8장과 9장을 연결하여 읽을 때 하나님은 장로들의 요구에 처음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의 행동결여로 결국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재개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 때 사울이 보내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 이렇게 재구성된 왕정수립과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요구와 실수

---

20) Alter,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W. W. Norton, 1999), 52 참조.

를 싸안고 역사를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준다. 한편 하나님의 행동이나 계획이 인간의 자의적인 행동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며 궤도수정까지도 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됨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sup>21)</sup>

비밀리에 사울을 기름부은 사무엘은 그가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날 징조를 알려주고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그가 내린 명령은 그 모순된 성격으로 인해 후에 사울의 추락을 예기할 수 있게 한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sup>22)</sup>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삼상 10:7).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삼상 10:8).

사무엘은 징조들이 임한 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사울의 손이 찾는 무엇이든 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바로 연이어 그 무조건적인 허락을 제한하는 명령을 덧붙인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

21) 과정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사고의 전환(paradigm shift)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설득적”인 것으로 표현된다고 본다. 이러한 면은 외모가 뛰어난 사울을 보내 사무엘을 회유하고 설득하는 하나님의 상에서 잘 드러난다; 케이스-윈터스(Anna Case-Winters, *God's Power: Traditional Understanding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211.)가 표현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모든 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서 발견된다고 한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관계 속의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는 201-32쪽을 보라; 과정신학자의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견해는 다음을 참조하라: Schubert M. Ogden, *The Reality of God and Other Essays* (Dallas: Southern Methodist Press, 1992); John B. Cobb, *Doubling Thomas: Christology in Story Form* (Bloomington, IN: Meyer-Stone Books, 1990); Charles Hatshome, *Omnipotence and Other Theological Mistak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4).

22) 히브리원문은 “네 손이 찾는 무엇이든 하라”(וְהָיָה כִּי יִשְׁׁרְךָ אֶת יָדְךָ וְהָיָה לְךָ כִּי תַעֲשֶׂה)로 되어있다.

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가르칠 때까지 칠 일간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 명령이 자신의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한 채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이 비밀리에 기름부은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전처럼 농사일에 종사한다(삼상 11:5).

#### 4. 사울왕 뽑기(삼상 10:17-27)

비밀리에 사울을 기름부은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모아 왕을 선출한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자신들을 해산시킨 뒤 벌어진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모인다. 그들을 향해 사무엘은 예언자들이 사용한 심판의 말씀의 형식을 빌어 선포한다:<sup>23)</sup>

- 10:18a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메신저 양식)  
10:18b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구속사 회고)  
10:19a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  
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죄에 대  
한 책망)  
10:19b 그런즉 (therefore)...

예언자의 심판의 말씀은 죄에 대한 책망 뒤에 의례 “그런즉”으로 이어진 심판의 선언이 따르는데 사무엘은 심판의 선언대신 왕을 뽑도록 한다.

---

23) 예언적 심판의 말씀의 형식에 관해서는 Claus Westermann, *Basic Forms of Prophetic Speech*, trans. by Hugh Clayton White (Cambridge: Lutterworth Pres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129-168 참조.

그가 의도적으로 심판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빌어 말하였다면, 맥카터(P. McCarter)가 지적한 것처럼 왕정을 심판으로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배열은 왕을 주는 것이 일종의 징벌임을 암시한다고 말한다면 과장일 수 있으나 아주 약간의 과장일 뿐이다. 여기서 왕을 주는 것은 부정적인 심판의 일종으로 또는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불러들인 심판으로까지 생각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풀어쓸 수 있겠다: “아웨는 출애굽이후 백성들을 변함없이 보호해 왔다(18절). 아웨만이 그들의 구원자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를 거부했고 지상의 왕을 요구했다(19a절).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의 왕을 갖게 될 것이다(19b절), 그리고 (암시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징벌이 될 것이다!”<sup>24)</sup>

사무엘의 연설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백성들의 왕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다. 그동안 학자들이 간과하여 왔던 것은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상에 미치는 영향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주라고 두 번씩이나 명령하였던 것과 직접 왕을 보낸 것, 그리고 왕을 백성들의 구원자로 묘사한 것,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은 것 등은 왕권에 대해 하나님이 초기에 보였던 부정적인 태도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들을 역사쓰기에 동참시켰다. 따라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이 반왕정의 태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자들이 그의 태도를 하나님의 것과 혼동하였다. 이는 예언자로서 사무엘이 누리는 자유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있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전달한다. 미스바에서의 사무엘의 연

---

24) McCarter, / *Samuel*, 195.

설은 좋은 예이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으나 부연하여 전달한다.

8: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10:18 ...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사무엘의 인용)

그 다음 절에 있는 책망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고 사무엘의 말로 전달된다

10:19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셋째로, 미스바 성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소집된 것이 아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1)“그들을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것(삼상 8:9)과, 2)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는 것(삼상 8:22), 3)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삼상 9:16)는 것이다. 이 명령을 사무엘은 임의적인 해석을 통해 삼단계로 실행하였다. 사울을 은밀히 기름붓고,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선출하고, 야베스 길르앗을 구출한 사울의 왕권을 갱신한다. 이러한 관찰은 사무엘의 미스바 연설을 새로운 시각에서 읽게 한다. 그의 연설이 하나님의 초기의 반응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왕권을 수용하고 왕을 보내기까지 하였던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 반왕정적인 하나님의 상을 그려내고 있다. 결국 그는 왕권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하나님의 정서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 5. 사울의 왕권 발효식(삼상 11장)

사울의 왕권은 잠복기를 가진 후에야 야베스 길르앗의 위기를 통해 발효가 된다. 암몬사람 나하스의 위협에 처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들을 도울 사람을 찾기 위해 전령을 보내는데 사울은 밭에서 일하다 그 소식을 접한다. 그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왕권이 아직 명목상임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사울은 소식을 접하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난다(삼상 11:6).<sup>26)</sup> 그의 노는 전쟁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소집하게하고 사울은 야베스 길르앗을 구하게 된다. 그가 암몬사람을 쳐부순 일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그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의 왕으로서 역할도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된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던 것과 짝하여 백성들에게는 “아웨의 두려움”이 임하여 그의 소집명령에 한 사람같이 나아온다(삼상 11:7).

사울의 암몬사람들에 대한 승리가 있기까지 사무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울의 소집명령에만 그의 이름이 언급될 뿐이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삼상 11:7). 사울의 승리는 사울이 왕의 역할 중 백성의 앞에서 그들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음(삼상 8:20)을 증명해준다. 그의 승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의 왕권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였던 이들을 죽이도록 사무엘에게 제안하게 하는데(삼상 11:12) 놀랍게도 사무엘이 아닌 사울이 그들에게 답변한다: “이 날에는 사

---

25) 사울의 농사일에 대해 에슬링거(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364-65)는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더불어 사울이 왕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리라는 제안을 한다.

26) 포켈만(Jan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A Full Interpretation Based on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es, Vol. IV: Vow and Desire (1 Sam 1-12)* [Assen, Netherlands: Van Gorcum, 1993], 456) 역시 사울의 노를 격동시킨 하나님의 영에 주목한다: “the Spirit puts Saul in a great rage, and this fury radically alters the situation.”

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 이니라”(삼상 11:13). 사울의 판결은 백성중의 분쟁과 적의를 해결하는데 이는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왕으로서의 사울의 자질은 아베스 길르앗 거민을 구하는데서 시험대에 오르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사울은 왕으로서 적임자임을 증명한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을 갱신한다. 이 일련의 사건에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에 반응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 6. 왕과 사무엘(삼상 12장)

사무엘상 12장은 왕권을 갱신한 사무엘의 고별사로 보이나 그는 결코 지도자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왕정 내에 자신의 중보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해낸다. 사무엘은 먼저 사사로서 자신의 흠 없는 기록을 변론한다(삼상 12:3-4). 그는 서두에서 그의 아들들을 지나가듯이 언급하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음과 그들을 사사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실은 그가 사사로서 흠 없이 행하였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sup>27)</sup> 그러나 사무엘은 모든 질문을 그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함으로써 아들들의 비행을 언급할 장을 만들지 않으며 그의 사사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백성들에게서 끌어낸다.<sup>28)</sup> 그의 질문에서 연속적으로 일인칭 단수가 쓰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

---

27) 알터(Alter, *The David Story*, 41)는 8장 1절 즉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 것은 그가 사사로서의 직무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본다.

28) 에슬링거(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386)는 사무엘이 그의 공적 뒤로 그의 아들들의 실패를 숨기려하고 있다고 본다.

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삼상 12:3)

사무엘의 사사직이 흠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됨으로써 왕정요구의 모든 책임은 백성들이 떠맡게 된다. 이것은 사무엘상 8장에서 본 바대로 사무엘의 연로함과 그의 아들들의 뇌물수수와 불공정한 판결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과 상반되는 것이다.

자신의 사사직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변론한다. 이를 위해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인용하는데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죄, 외부세력의 억압, 이스라엘의 회개, 사사들을 통한 구원이라는 패턴으로 사건들을 나열하며 사사들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주장한다(삼상 12:9-11). 그러나 사무엘은 사사기 때의 혼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sup>29)</sup> 또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시기를 암몬사람 나하스의 위협이 있던 때로 언급함으로 위에 언급된 패턴에서 백성들의 왕정요구를 억압 뒤에 배치한다.<sup>30)</sup> 그 이전의 패턴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나하스의 위협에 직면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한 구속을 이루시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회개대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함으로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삼상 12:19):

조금이라도 성경본문에 주의를 기울여 읽는다면 누구라도 사무엘의 역사회고의 화자의 것과 일치되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것이다. 성경본문에

---

29) 사사기의 화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불법함이 편만하였다고 설명한다(삿 17:6; 21:25). 화자의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헤르쯔베르그(Hertzberg, *I & II Samuel*, 98)는 백성들의 무법한 행동의 치료책을 왕으로 본다: “a state of affairs to which only the time of the kings offered a remedy.”

30) 사건배열의 오류에 관한 짧은 연구사는 에슬링거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410, n.18을 보라; 버노이(J. R. Vannoy, *Covenant Renewal at Gilgal: A Study of 1 Samuel 11:14-12:25* [Cherry Hill: Mack Pub. Co., 1978], 38-39)는 나하스의 위협이 8장에서 왕을 요구하도록 동기부여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성서본문의 사건배열은 이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따르면 나하스의 위협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후, 사울이 비밀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백성들 가운데서 왕으로 선택된 다음의 일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나하스의 위협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불일치는 사무엘의 연로함에서 온 착각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의도된 역사의 왜곡인가?<sup>31)</sup> 극중 인물보다는 화자의 진술이 신뢰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함을 고려할 때, 사무엘의 역사회고는 후자로 볼 수밖에 없다.

공시적(synchronic)으로 본문을 읽을 때에 사무엘은 역사가들이 흔히 행하는 이데올로기적이며 해석학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32)</sup> 그는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순서로 나열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왕이심과 백성들의 왕의 요구를 나란히 놓았을 때 백성들의 요구는 배교가 될 수밖에 없다. 사무엘의 왕에 대한 반감은 왕에 대한 그의 소개사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  
느니라(삼상 12:13)

사무엘의 말은 신명기 17장 15절의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신

---

31) 에슬링거(Eslinger)는 화자의 역사회고에 신빙성을 두며 사무엘의 것에 대해서는 “an attempt ... to reinterpret the past, attributing the desire for a monarchy solely to Israel's inexplicable willfulness”라고 평가한다(*Kingship of God in Crisis*, 402). 헬러(Roy Heller) 역시 동일하게 사무엘의 것을 부정확한 것으로 보고 백성을 기만하는 것으로 본다(*Power, Politics, and Prophecy* [New York/London: T&T Clark, 2006], 114–117).

32) 역사기록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에 관해서는 Richard D. Nelson, *The Historical Book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21–24를 보라.

순서를 바꿈으로 사무엘은 왕을 택할 하나님의 권한을 백성들이 침범했다고 은연중에 주장하는 것이다.<sup>33)</sup> 그의 주장은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져 기름부음을 받고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백성들에 의해 요구되긴 하였으나 하나님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왕의 선택이 제비뽑기로 결정 되었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택하였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자신의 사사직의 흠 없는 기록과 사사제도의 유효성을 짚은 역사회고를 통해 증명한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임을 확증하기 위해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 구한다. 우레와 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사무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공포에 질린 그들은 사무엘의 중보를 구한다. 사무엘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며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을 다짐하고 그는 은퇴대신 중보자요 지도자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게 된다(삼상 12:23-25).

## 7.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실한 대변인인가?(삼상 13장)

사울은 두 번의 비난과 거절을 통해 왕권을 잃게 된다. 첫 번째 거절은 블레셋과의 전투시 드린 그의 희생제사로 인한 것이고(삼상 13장),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헤렘법을 철저히 집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삼상15장).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열세에 몰린 사울은 사무엘이 오

---

33) 김재구는 사무엘과 모세의 이야기에서 결말만 다른 동일한 패턴을 발견한다. 모세의 경우 “모세의 탄생-여호와를 모르는 바로-열 가지 재앙-홍해-여호와와 왕권의 선포”로 정점을 이루는 반면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탄생-여호와를 모르는 엘리와 그의 아들-법궤이야기-미스바-인간왕을 요구함”으로 결말에 있어서 대조는 이룬다. 김재구, 윗글, 89-90.

기까지 약속된 이레를 기다리나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흠어지는 위기상황에서 번제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 직후 사무엘이 나타나 사울을 꾸짖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하여(14절, וַיִּבְרַח בִּכְשִׁי/찾다/피엘 완료형) 지도자로 삼았음을 선포한다. 사무엘의 비난과 선포는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그가 말하는 사울이 지키지 않은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삼상 13:13)라고 말할 뿐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화자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삼상 13:8)라고 말하는데서 독자는 문제시 되고 있는 명령이 10장 8절에서 언급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  
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이 명령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직후 받은 것으로, 해석에 따라 칠일이 지나기까지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일 수 있고, 또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일 수 있다.<sup>34)</sup> 사무엘의 명령의 모호한 성격을 고려할 때, 사울은 그 명령의 첫 번째 부분을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는 칠일 간 기다렸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번제를 드린 것이다.

두 번째, 번제를 드린 상황에 대한 화자의 설명과 사울이 것이 일치하며, 이는 화자가 사울에게 동정적인 것을 보여준다. 사울은 번제를 드린 상황을 사무엘에게 설명하며 “정해진 칠일”을 언급한다:

---

34) Gunn, *The Fate of King Saul*, 39.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삼상 13:11-12).

블레셋 사람들이...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므마스에 진 치매...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번제를 드렸더니(삼상 13:5, 8-9)

화자는 블레셋의 병력을 사울보다 더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사울의 긴박한 상황을 강조한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에 비해 사울에게 남은 백성이 육백 명 가량이었음(삼상 13:15)은 그의 절박한 상황을 한눈에 보게 한다. 화자의 설명은 사울이 위급상황에서 정해진 기일이 지나 번제를 드렸음에 화자도 동조하며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동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5)</sup>

세 번째, 사무엘의 책망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다.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 사울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으며, 사무엘에게 매어달리지도 않는다. 이는 사무엘상 15장에서 그가 헤렘법을 명백히 어긴 후 보여준 태도와 확연히 구별된다(삼상 15:24-27 참고). 사무엘의 비난 후에 화자는 사울이 요나단의 공적에 힘입어 블레셋을 이기었음을 알린다(삼상 14장).

---

35) 폴핀(Robert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c History: 1 Samuel*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9], 129)은 화자의 사울에게 유리한 묘사에 주목하며 "This double establishment of the antecedents of Saul's decision to sacrifice puts his action in a favorable light from the narrator's perspective"라 결론짓는다. 헤르쯔베르그(Hertzberg, *I & II Samuel*, 105) 역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From the description of the affair we seem to have a vindication of Saul rather than a charge against him. Saul has done what was permissible for him to do according to Samuel's express instructions ... If anyone is in the wrong here it is Samuel, and not Saul."

네 번째, 이야기의 흐름에서 볼 때 사울의 번제는 그가 새 마음을 받고(삼상 10:9)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후(삼상 11:6)에 드러진 것이다. 따라서 헬러(Heller)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sup>36)</sup> 또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삼상 10:7)한 말을 고려한다면 그의 행동이 사무엘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 오지 않음과 사태의 긴박함을 보고 그가 기회를 따라 행하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섯 번째, 사울의 번제에 대한 사무엘의 비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의문시된다. 본문 어디에서도 사무엘과 하나님의 대화나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볼 수 없다. 사무엘만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을 대신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뿐이다.<sup>37)</sup>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렸고, 그를 대신할 자를 찾아서 지도자로 삼았다고 사무엘이 선포하지만, 실제로 다윗을 기름붓는 것은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후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버렸음을 선포한 이후에야 이루어진다. 사울이 첫 번째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음을 선포하였다면, 그가 두 번째 실패하였을 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삼상 15:11)고 또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후회는 사무엘의 예기치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

36) 헬러(Heller, *Power, Politics, and Prophecy*, 122)는 10장 9절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구절에 근거하여 사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If Saul’s heart is not right before YHWH, then YHWH alone is the one to blame.” 그의 주장은 새 마음이 구체적으로 사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단서들이 본문에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그 근거가 빈약하긴 하지만 새 마음과 사울의 결정들을 연결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37)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왕을 주라할 때(삼상 8:7-9, 22) 사울을 기름붓기 위해 보낼 때(삼상 9:15-17)와 사울의 명백한 헤렘법 위반 때(삼상 15:10-11)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있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삼상 15:11).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삼상 15:35).

사무엘의 근심과 슬픔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이미 선포한 선지자의 반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가 사울의 번제 앞에서 보인 단호한 태도와도 확연히 대조된다.

이 모든 정황들은 사무엘의 선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한다. 만일 사울의 번제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정한 기일에 나타나지 않은 사무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도 보시지만, 사무엘의 잘못도 고려하여 침묵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자신의 선포가 지연된 것은 하나님이 상황을 고려하여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13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상은 사무엘이 그런대로 한 번의 불순종으로 사울을 폐위하기보다는 잘잘못을 가리며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8. 하나님의 후회 (삼상 15장)

사울은 사무엘의 선포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진멸하는 대신 아각왕을 살려두고 가축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다. 이에 블레셋 전에서 사울에게 동정적이었던 화자는 아말렉전에서는 동일한 동사를 반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사울의 실제 행동을 대비시킴으로 사울의 불순종을 부각시킨다:

명령 (삼상 15:3)	실행 (삼상 15:9)
וְהִחַרְמֹתָם אֶת-כָּל-אֲשֶׁר-לוֹ 그들의 모든 소유를 ... 진멸하되	וְלֹא אָבוּ הַחַרְמָם 그들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וְלֹא תִחַמֵּל עִלָּיו 남기지 말고	וְנִחַמֵּל שְׂאֵיֵל הָעֵם 사울과 백성이 ... 남기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이행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함을 알린다(삼상 15:11). 하나님의 후회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사무엘에게 내리는 어떠한 행동 지시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문의 침묵에 주목하여 그린(Green)은 실제로 사울을 폐위한 것은 사무엘이라 제안한다.<sup>38)</sup> 사울의 폐위가 언급된 것이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였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본문의 침묵을 다만 지적하고자 한다.

사무엘의 책망 앞에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무엘이 돌이켜 자신과 함께 주께 경배하기를 청한다. 사울의 요청에 대한 사무엘의 답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삼상 15:29).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직접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고 화자도 사무엘 상 15장 3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전한다는 것이다. 말의 신뢰도에 있어서 화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하나님 자신의 말이 사무엘의 말보다 우위를 차지함은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후회/변개하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sup>39)</sup> 하나님의 후회/변개를 신학적 원리로 언급하면서 모벌리(R. W. L. Moberly)는 말한다:

38) Green, *How Are the Mighty Fallen*, 261.

39) “후회”와 “변개”는 동일한 히브리 단어(נחם)를 번역한 것이다.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상호응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참되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람간의 관계역학에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 관계는 상호적이며, 발전하거나 쇠퇴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 가는 하나님께 중요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반응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sup>40)</sup>

동일한 맥락에서 프레타임(Fretheim)은 하나님이 사울과의 경험(그리고 실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말한다.<sup>41)</sup> 그의 지적은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각기 다르게 대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례로, 사울에게는 순종하면 그의 왕조가 영속되리라는 약속을 준 반면<sup>42)</sup> 다윗에게는 후손의 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준다: “...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חַסֵּד)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삼하 7:14-15).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여 행동한다고 할 때 사울의 회개가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폴진(Polzin)은 사람의 후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후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본다.<sup>43)</sup> 사울의 회개가 하나님의 회개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헤르쯔베르그(Hertzberg)의 해석도 동일하다:

---

40) R. W. L. Moberly, “‘God Is Not a Human That He Should Repent’ (Numbers 23:19 and 1 Samuel 15:29)”, in *God In the Fray: A Tribute to Walter Brueggemann*, (eds. by T. Linfelt/T. K. Beal) (Minneapolis: Fortress, 1998), 114-15.

41) Fretheim, “Divine Foreknowledge, Divine Constancy, and the Rejection of Saul’s Kingship”, 599.

42) 이 가능성은 사울이 번제를 드린 후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는 중에 언급된다: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삼상 13:13). 사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지에 대해 본문은 침묵한다.

43)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147.

하나님은 그 자신의 결정들에 노예처럼 얽매이지는 않으며, 그 결정들의 주인이 될 정도로 전능하다... 하나님은 그가 사용하는 도구가 믿을만하지도 적합하지도 않게 보일 때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sup>44)</sup>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저버렸다고 사무엘이 선포한 것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논문은 하나님이 사울의 번제의 부당성을 인정하지만, 사무엘의 책임도 감안하여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만일 이 가능성을 채택하여 사무엘상 15장을 읽는다면 길갈 에피소드 후에 사울은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지만 결국 또 실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9. 결론

이 글은 화자의 진술과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에 비친 하나님의 상과 사무엘의 말씀전달과 명령 이행과정에서 그려진 하나님의 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그가 그려낸 하나님의 상이 여기저기에서 그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 일그러진 것을 보았다. 최근 신화학비평학자들은 바로 이 일그러진 초상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백성들의 왕정요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초기의 적대감은 왕정수립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로 대치되는데 반해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반왕정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따라서 성경본문에 나타난 반왕정적인 정서는 대부분 사무엘의 것이며 왕정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와 하나님의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

44) Hertzberg, *I & II Samuel*, 126.

하나님의 대변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행하고, 사사직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누린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도 하고(백성들의 왕정포기 설득, 백성들 해산), 사울을 비밀리에 왕으로 기름 붓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하고, 자신의 사사직 변론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기도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임의로 선포하기도 한다.

반면 하나님은 사무엘의 행동결여나 주저함으로 사태에 진전이 없을 때 마다 직접 개입하여 왕을 보내기도 하고, 사울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며 사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정수립 과정은 강압적이고 불변하기보다는 사람의 실수와 자의적인 행동, 반역적이고 파괴적인 요구 등을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변화시키고 때로는 수습하면서 사람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역사를 써가는 개방적인 하나님의 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하나님 이해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들의 책임을 증대시킨다.

## 10. 참고문헌

- 김재구, “사무엘, 하나님의 실패한 계획,” 「구약논단」35집 (2010년 3월), 89-90.
- Alter, Robert,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W. W. Norton, 1999).
- \_\_\_\_\_,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Amit, Yaira, *Reading Biblical Narratives: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 Case-Winters, Anna, *God's Power: Traditional Understanding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 Clements, R. E., “The Deuteronomistic Interpretation of the Founding of

- the Monarchy in I Sam. VIII”, *Vetus Testamentum* 24 (1974), 398–410.
- Cobb, John B., *Doubting Thomas: Christology in Story Form*. (Bloomington, IN: Meyer–Stone Books, 1990).
- Eslinger, Lyle M., *Kingship of God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1 Sam 1 – 12* (Bible and Literature Series, 10; Sheffield: Almond Press, 1985).
- Exum, J. Cheryl, *Tragedy and Biblical Narrative: Arrows of the Almigh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Fokkelman, Jan P.,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A Full Interpretation Based on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es, Vol. IV: Vow and Desire (1 Sam 1–12)* (Assen, Netherlands: Van Gorcum, 1993).
- Fretheim, Terence C., “Divine Foreknowledge, Divine Constancy, and the Rejection of Saul’s Kingship”,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7 (1985), 595–602.
- Frolov, Serge, *The Turn of the Cycle* (Berlin: Walter de Gruyter, 2004).
- Green, Barbara, *How Are the Mighty Fallen? A Dialogical Study of King Saul in 1 Samuel*. (JSOTSup 365; London/New York: Sheffield Academic Press Ltd., 2003).
- Gunn, David M., *The Fate of King Saul* (JSOTSup 14; Sheffield: JSOT Press, 1980).
- Hamilton, Jeffries M., “Caught in the Nets of Prophecy? The Death of King Ahab and the Character of God”,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6 (1994), 649–663.
- Hatshorne, Charles, *Omnipotence and Other Theological Mistak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4).
- Heller, Roy, *Power, Politics, and Prophecy* (New York/London: T & T Clark, 2006).
- Hertzberg, H. W., *I and II Samuel: A Commentary*. translated by J. S. Bowden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 McCarter, P. Kyle,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 Commentary*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 Moberly, R. W. L., “‘God Is Not a Human That He Should Repent’ (Numbers 23:19 and 1 Samuel 15:29)”, in *God In the Fray: A Tribute to Walter Brueggemann*, eds. by T. Linafelt and T. K. Beal (Minneapolis: Fortress, 1998).
- Nelson, Richard D., *The Historical Book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Ogden, Schubert M., *The Reality of God and Other Essays* (Dallas: Southern Methodist Press, 1992).
- Polzin, Robert,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c History: 1 Samuel*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9).
- Sellars, Dawn Maria, “An Obedient Servant? The Reign of King Saul(1 Samuel 13–15) Reassesse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Vol. 35,3(2011), 317–338.
- Vannoy, J. R., *Covenant Renewal at Gilgal: A Study of 1 Samuel 11:14–12:25* (Cherry Hill: Mack Pub. Co., 1978).
- Westermann, Claus, *Basic Forms of Prophetic Speech*, (trans. by Hugh Clayton White) (Cambridge: Lutterworth Pres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검색어

사무엘

사울

왕권

신문학비평

캐릭터

## God, Samuel's God

**Hyo-Myong Lim**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h.D.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portrait of God in the story of Saul. There are two extreme opinions about the reason for Saul's fall. One blames Saul, the other God. Recently new literary critics found more faults with God than with Saul based on their observation that God was displeased with the people's demand for a king. They argued that Saul was predestined for failure due to God's ill-will. The portrait of God drawn by them is characterized by ambiguity, malice, and hostility.

Utilizing new literary critical method, especially characterization, textual gap and ambiguity this study closely examines the ways in which Samuel's words and deeds affect the unfolding of the story and the portrait of God. His portrayal of God is divergent from that of the narrator and God.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portrait of God drawn by the new literary critics is based on the projection of the prophet Samuel which is tainted by his own agenda. The prophet enjoys considerable freedom in carrying out God's command, partly because of the laconic nature of God's commands. He is free even to do nothing about God's command. Often times he has to interpret the commands into actions, filling details in. In the process his agenda dilutes and in some cases eclipses the intention of God, resulting in the distortion of the portrait of God.

Rather than being malicious and hostile, the author finds a God, who initially shows anti-monarchic sentiment, preempts the people's demand for a king and takes initiative in placing a king over Israel. God is open to human demands and embraces human frailty.

This study challenges the long-held assumption that Samuel faithfully represents God, and convincingly establish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his article is expected to catalyze a deeper study of the characters in biblical stories.

## Key words

Samuel

Saul

Kingship

New literary criticism

Character

- 투고일: 2012년 9월 26일
- 심사일: 2012년 10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05일

[www.kci.go.kr](http://www.kci.go.kr)